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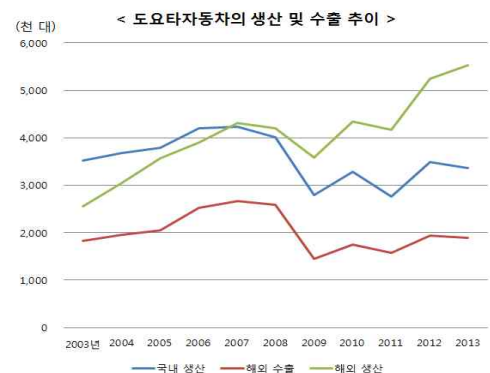
아베노믹스와 한.일 경제관계

* 이 자료는 무코야마 히데히코(向山英彦) 일본총합연구소 상석주임연구원이 「동양경제일보 전환기의 한국경제(14.10.24)」에 기고한 내용과 「한일 경제협력 포럼(14.10.30)」에서 발표한 내용을 요약, 정리한 것임

- 아베노믹스 이후 한국의 對日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, 對세계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, 특히 對中 수출이 급증하여 과도한 중국 의존이 우려되고 있음
- 또한, 일본기업의 한국 자동차부품 채용 확대, 화학·소재 분야의 대규모 투자 등 특정 분야에서는 한일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

□ 아베노믹스의 일본 국내 평가

- 아베노믹스에 의한 대담한 금융정책, 기동적 재정정책, 성장전략 등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일본 국내에서도 엇갈린 평가
 - 성장전략의 실천 지연, 소비증세에 의한 경기 침체 등에 대해 일본정부가 적절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
 - 엔低는 수출 대기업의 실적 개선과 임금 인상 등을 초래한 반면, 수입물가의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이나 서민 생활에는 마이너스 영향
- 엔低로 일본기업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, 일본기업들의 해외생산 확대로 인해 예상보다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
 - 자동차산업은 구미와 통상 마찰이나 엔高를 계기로 '80년대 이후 일본기업들이 해외 생산을 적극 추진해 왔음
 - 일본기업은 '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'한다는 전략으로, 일본 국내생산을 중시하던 도요타자동차도 해외생산이 국내생산을 크게 상회
 - 일본기업들이 환율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 생산 체제를 구축해온 결과, 엔低가 되더라도 수출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로 전환되어 엔低가 일본기업의 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



□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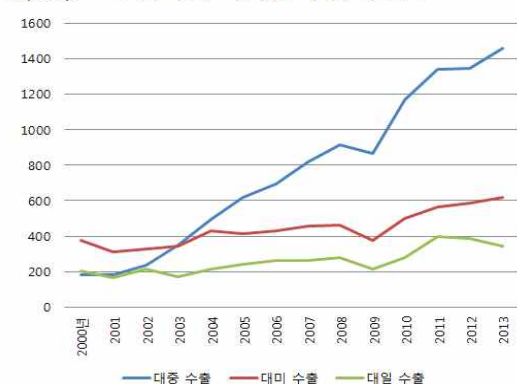
- 원高는 한국기업들의 투자 증가세의 둔화에 기인한 것이며, 한국의 투자율은 저축률을 크게 하회, 이로 인한 경상흑자 확대가 원高를 가속화시키고 있음
 - 하지만 한국의 對세계 수출은 아베노믹스 이후 오히려 증가했으며, 對日 수출을 제외하면 수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임
 - * 한국의 對세계 수출 : ('12) 547조 8,697억 달러, ('13) 559조 6,324억 달러 → 2.1% 증가
- 그리고 한국기업들도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변동의 영향이 과거보다 크지 않으며, 한국기업과 일본기업의 시장개척 전략이 다른 요인도 작용
 - 현대자동차는 BRICs를 중심으로 해외생산을 확대, 특히 중국에서는 '02년부터 현지생산을 시작했고 '12년에는 제3공장을 준공하며 중국시장을 개척
 - 현대자동차의 시장 개척의 특징은 볼륨존을 타깃으로 신흥국에서 소형차 중심의 판매 전략을 추진
 - 이에 대해 일본기업은 중형차를 우선적으로 투입한 결과 소형차 경쟁에서 뒤늦게 진입, 이러한 전략 차이로 신흥국에서는 현대자동차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
- 한편, 미국시장에서는 한국 수출이 40~50%를 차지하고 있어 환율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
 - 현대자동차의 미국 현지생산은 '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, 한국에서의 수출 비율이 감소되고는 있지만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
 - 현대자동차의 한국 국내생산 비율이 높은 이유는 ①안정적 서플라이체인 존재, ②각국에서 판매대수가 적은 차종을 한국에서 집중하여 생산 코스트 삭감, ③FTA 활용, ④원저에 의한 수출 경쟁력 강화 등임
- 엔高 시정과 TPP 협상 참가 등으로 한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장점이 이전보다 저하되었고, 이에 따라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도 감소
 - 동일본 대지진 이후 6중고(①엔高, ②높은 법인세, ③자유무역협정 대응의 지연, ④엄격한 노동규제, ⑤환경규제 강화, ⑥전력 부족)로 인해 고전했던 일본기업들은 對한국 투자를 확대했으나, 최근 들어 일본 국내 경영 환경 개선으로 對韓 투자는 감소 추세

- 한편 화학·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일본의 對韓 투자는 ‘집중과 선택’ 전략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임

□ 한.일 경제 관계에서 주목할 사항

- 2000년대부터 한국기업은 수출이나 현지생산을 통해 글로벌화를 가속, 무역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고 對日 의존도는 감소
 - 한국의 對中 수출은 ‘01년에 일본을 추월, 현재 규모는 對日 수출의 약 4.2배
 - 2위 수출국인 미국과는 약 2.3배 차이가 있어 중국의 과도한 의존이 우려
 -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중국의 성장 둔화, 과잉생산, 스마트폰 등 중국의 경쟁 제품이 대두되고 있어, 차이나 임팩트(China Impact)가 크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보임
- 한편 한국기업의 글로벌 사업 전개에 따라 일본에서 생산재의 수출이 증가, 일본의 對韓 수출 의존도는 증가
 - 2000년에 318억 2800만 달러였던 일본의 對韓 수출은 ‘13년에 600억 2900만 달러로 증가, 의존도는 6.6%에서 8.3%로 증가
 - 서플라이어(공급자)인 일본기업에게 ‘납품거래처로서 한국기업’의 존재감이 향상
 - 최근 변화는 일본기업에 의한 한국 현지생산 확대, 일본의 對中 수출 소재를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3국 생산지로서의 기능이 증대되고 있음

(억 달러) < 한국의 국가별 수출 추이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(억 달러) < 일본의 대한 수출 추이 >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- 한국의 對日 수출은 감소하고 있지만, 자동차부품 관련 분야는 일본기업의 한국산 부품 채용이 확대되어 수출이 견실하게 증가
 - نيسان자동차 큐슈공장에서 한국산 부품 조달, 한일 정부에 협력에 의한 심리스(seamless) 물류망 구축 등이 요인

□ 시사점

- 한국경제도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여 기존의 한국형 성장모델이 기능하지 않는 상태
 - 경제의 성숙화는 이미 예상된 결과이므로 새로운 성장모델의 모색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
 - 차이나 임팩트의 극복이 필요하고, 이를 위해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고도화와 내수 확대에 대한 노력이 중요
- 새로운 한.일 관계를 향하여 양국의 ‘공통 이익’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음
 - 향후 한국에서 산업고도화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므로 일본기업에게도 비즈니스 찬스가 늘어날 것임
 - 한.일 경제통합에 의한 서플라이 체인 확대, 환경 에너지, 인프라 분야의 한.일기업간 협력 추진이 필요
 - 저출산·고령화 등 양국 공통 문제에 대한 대응,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지원 서비스의 공급면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 